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ILENT HEARTS

가제 : 침묵하는 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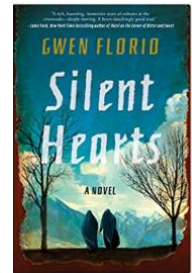
저자 : Gwen Florio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8년 7월 24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여성소설



- * “교차되는 문화에 관한 풍부하고 흡입력과 깊이 있는 이야기.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Love and Other Consolation Prizes』의 작가 제이미 포드
- * “9/11 이후 아프간 사람들의 삶과 함께 미국의 공격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본 미국을 보여주는 이야기” - 『The Space Between Us』의 작가 스리티 움리가

여행의 묘미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행동했던 것들과 크게 다른 문화를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 어색하고 낯선 수준을 떠나, 너무나 다른 가치관과 전통이 뿌리 깊게 자리한 곳에서, 여행이 아닌 장기간 생활을 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래도 여행자처럼, 한 걸음 물러난 위치에서 느긋하게 풍경을 즐길 수 있을까? ‘전쟁’, ‘테러’라는 무서운 단어가 자동으로 함께 떠오르는 나라, 아프가니스탄으로 간 미국인 부부와 그곳 전통에 순응하며 사는 현지인 부부를 통해 서로가 느끼는 엄청난 문화의 격차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갈등과 함께 뜻밖의 진한 우정을 그린 이 소설에서는 서구 사회가 보도하고 전해온 아랍인들의 모습이 아닌, 그 속에서 서방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강조한다. 과연 누가 무슨 근거로 낯선 전통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우세하거나 최신 기술이 더 많다고 해서, 정의와 윤리의 기준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을까? 네 명의 주인공들이 저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다.

리브와 마틴 부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한 건 전 세계를 경악시킨 9/11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다.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긴 세월 억압되고 왜곡된 통치체제 하에서 짓눌린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불안과 혼란을 각자의 방식으로 돕는 것이 부부의 목표였다. 중동 전문가인 대학교수 마틴은 급변하는 아프간의 실상을 현지에서 목격하고, 생생한 자료를 모아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할 논문을 쓸 생각이었다. 마틴의 눈에는 훨씬 더 무식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동료들이 대단한 전문가라도 되는 것처럼 승승장구하는데, ‘진짜’ 전문가인 자신의 연구는 도통 인

정을 받지도 못하고 커리어가 위태로워진 상황을 스스로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프간 행은 하락세로 접어든 커리어를 되살릴 절호의 기회였다. 리브는 아프간에서 활동 중인 NGO 단체에 들어가 미국과 영국의 공격을 받아 독재 정권에 이어 전쟁의 위기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편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한 때 마틴의 제자였던 리브는 겉으로는 점잖은 남편이 강의실에서 만난 여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추근대는 타입이라는 사실을 결혼 후에야 깨달았고, 제대로 큰 건이 한 번 적발된 후에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다. 그래서 중동행을 결심하며, 리브는 결혼생활을 바로 세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파키스탄에서 나고 자란 파리다는 열린 교육을 중시하는 부모님 덕에 십대 시절을 해외에서 보내는 행운을 누렸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시절에 다양한 언어를 익힌 파리다는 대체로 가장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않는 같은 고향의 남자들에게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거센 움직임이 일고, 아버지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집안 전체가 곤경에 처해 경제적으로도 파산 위기에 이르자 파리다의 인생도 가장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간다. 잠시 파키스탄에 머물다 근거지인 아프간 카불로 돌아가는 대단한 집안의 며느리로 팔려가게 된 것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거부할 판국에 일면식도 없는 남자와, 돈 때문에 평생을 살아야 하다니? 그러나 늘 효녀였던 파리다는 자신의 희생이 부모님과 남은 식구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수락한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헤어져서 낯선 아프간 땅에서 눈 외에 온 몸을 가려야 하는 부르카를 두르고 여자는 없는 존재처럼 숨죽여 살아야 하는 삶이 두려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마침내 카불에 도착한 리브와 파리다는 자선 운동가와 통역사로 처음 만난다. 두 사람 모두 태어나 처음 보고, 듣고, 경험하는 아프간 생활에 놀라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특별한 매력에 빠져 들고 특히 파리다는 억지로 참고 살아야 할 줄 알았던 남편 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행복한 신혼 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나 마틴은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명목으로 리브에게 아프간에서 만난 여성들의 생활과 남자들이 갖는 우월한 지위, 그것을 바라보는 여자들의 시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요구하고, 파리다 역시 시아버지와 남편 곁로부터 일종의 스파이 활동을 요구 받는다. 미군과 영국군이 자신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는 와중에 자선 활동가라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혹시 뒤에서 수상한 계획을 꾸미고 있지 않은지 캐내라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파리다와 리브는 급속히 가까워지고, 리브가 위기에 처한 순간 파리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면서 우정은 더욱 짙어진다. 그러나 마틴은 아이까지 뺀 파리다에게 부적절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하고,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의혹과 폭력이 들끓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여성들의 우정과 강인함을 그린 색다른 소설이다.

<저자 소개>

그웬 플로리오(Gwen Florio)는 「Missoulia」 편집자로 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데뷔작 『Lola Wicks』 탐정시리즈로 하이 플레인스 북 어워드(High Plains Book Award)와 핑클리 상(Pinckley Prize)을 수상했다.

제목 : LAST SUMMER

가제 : 도난당한 기억

저자 : Kerry Lonsdale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7월 9일

분량 : 317 페이지

장르 : 심리스릴러



- * 100만 부 이상 판매, 28개국 판권 계약, 24개 언어로 번역된 데뷔작 『EVERYTHING WE KEEP』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아마존 킨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작가의 신작
- * “복합적인 인물이 너무나 현실적인 상황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릴 줄 아는 작가다. 서늘한 서스펜스와 뜨거운 로맨스, 믿기 힘든 반전이 모드 담긴 최고의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Lie to Me 의 작가 J.T. E엘리슨(J.T. Ellison)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린 대형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실려온 엘라는 눈을 뜨자마자 녹초가 된 남편 데미언의 얼굴과 마주한다. 하지만 그가 데미언이고 남편이라는 사실 외에 다른 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왜 병원에 누워 있는지, 손목에 왜 링거가 연결되어 있고 배 아래쪽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더 이상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엘라의 대답에 데미언이 걱정이 아닌 낯선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분노였다. 냉소적인 미소를 겨우 누르며, 데미언은 엘라의 말을 믿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곧 마련된 신경외과 의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데미언은 엘라가 ‘일부러’ 이러는 거라고 대놓고 이야기했다. CT 결과상으로는 뇌 조직에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정신이 들수록 모든 기억이 아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만 쏙쏙 골라낸 것처럼 아예 기억이 나지 않아 엘라 스스로도 미칠 노릇이었다. 사고가 난 금요일, 퇴근한 데미언에게 오랜만에 직접 요리한 저녁을 차려준 것이 엘라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다. 식사 후에 혼자 차를 몰고 외출한 것, 사고가 난 것은 다 지워지고 없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사고 당시 엘라의 뱃속에 5개월이 넘는 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이먼이라고 태명까지 지어준 그 소중한 아기를 그토록 오랜 시간 뱃속에 품고 있었던 시간들까지 쏙 다 사라졌다. 데미언이 화를 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뿌옇게 흐려진 기억을 더듬어 사이먼과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입을 꼭 다물어버리는 데미언의 차가운 반응은 견디기 힘들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과 사이먼에 관한 기억은 도통 돌아오지 않고, 엘라와 데미언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멀어진다. 사이버 보안 업체를 운영하는 데미언은 잦은 출장과 야근, 새벽 회의 때문에 얼굴보기도 힘들 지경이 되고, 엘라 역시 사고 전까지 열정적으로 일했던 잡지사에도 다시 출근한다. <럭스 애비뉴>에서 편집장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선임 기자로 수 년째 일해온 엘라는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들과 단독으로 만나 인터뷰를 따내는 실력이 탁월한 것으로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다. 언론 인터뷰라면 일단 손부터 내젓는 사람들도 엘라와의 대화는 받아들이는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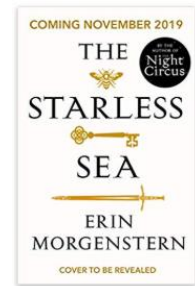
특유의 친근감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포착해내는 실력 덕분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엘라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사고가 나고 반년쯤 지난 어느 날, 편집장이 유명인인 네이션 도노반의 단독 인터뷰 기회가 찾아왔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치고 나서야 엘라는 사이먼과 사고 직전의 일들 외에 머릿속에서 지워진 또 하나의 기억이 있음을 알게 된다. 작년 여름, 전 세계를 유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탐험 이야기를 TV 시리즈를 통해 보여주면서 전 국민이 사랑하는 유명인이 된 네이션 도노반이 엘라의 인터뷰에 응했고, 엘라 자신이 당시 그가 머물고 있던 산간 오지로 직접 찾아가 무려 10일간 함께 지내면서 취재를 했다는 사실을 그 때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모두 동료를 통해 알게 된 것일 뿐 엘라의 기억 속에는 네이션이라는 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날 저녁, 데미언에게 네이션과의 두 번째 인터뷰가 잡혔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자, 또 다시 이상한 반응이 돌아왔다. 지난 몇 개월간 내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거리감이 느껴지던 데미언이 그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냐며 대뜸 요구한 것이다. 이유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 당장 해외 출장이 잡혀 있는데 함께 가서 여행이나 하자는 갑작스러운 제안까지 내놓았다. 데미언은 네이션을 알고 있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유는 알려주지 않을까? 엘라는 왠지 이번 일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고, 데미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다. 그러나 마침내 네이션과 만난 후에야 세상에 어떤 일들은 기억나지 않는 채로 두는 것이 더 낫다는 아픈 진실을 깨닫는다. 사고 이후 엘라의 입장에서 처음 만난 이 알쏭달쏭한 탐험가는 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디까지 꿰뚫고 있는지 겁이 날 정도로, 엘라를 소상히 알고 묘한 감정까지 내비치는 그가 부분적으로 지워진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야기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엘라가 남편 데미언과 만난 지 3주 만에 평생을 함께 할 사람으로 마음을 굳히고 50억이 넘는 초호화 빌라를 얻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중간중간 들려준다. 부모가 없어 결혼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었던 두 사람은 짧고 소박한 결혼식 후에 뜨거운 신혼 생활을 시작했고 사고가 일어난 날까지 3년이 넘는 세월을 서로만 바라보며 살았다. 네이션 도노반과의 인터뷰는 사고가 난 그 해 여름, 부부가 몰디브로 꿈 같은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이루어졌다. 엘라의 동료는 엘라에게 몰디브에서 돌아오자마자 거의 곧바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네이션을 만나러 갔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엘라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알렸는데, 결혼 전부터 아이는 원치 않는다고 확고히 이야기했던 데미언이 어떻게 순순히 사이먼을 받아들였는지 엘라는 도저히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 가려진 시간 속에서 벌어진 엘라의 외도와 데미언이 오랫동안 감춰온 아픈 비밀, 기억 조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누군가의 조용한 전쟁이 그제야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케리 론스데일(Kerry Lonsdale)은 『Everything』 시리즈를 100만 부 이상 팔며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올랐다. 그 밖에 『All the Breaking Waves』와 단편 소설을 발표하였다.

제목 : THE STARLESS SEA
가제 : 별이 뜨지 않는 바다
저자 : Erin Morgenstein
출판사: Harvill Secker
발행일: 2019년 11월 5일
분량 : 512 페이지
장르 : 판타지



-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크로아티아,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판권 계약
- * 37개 언어로 번역되며 300만 부 이상 판매된 판타지 데뷔작 『The Night Circus』 작가의 독보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두 번째 소설

무심코 집어 든 책에서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자신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얼마나 놀랍고 소름돋을까? 추운 1월 오후, 해야 할 과제와 읽어야 할 책들이 가득한데 며칠째 비디오 게임에 푹 빠져 산 것에 죄책감을 느낀 대학원생 재커리 에즈라 롤린스는 스크린이 아닌 종이에 인쇄된 글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학교 도서관에 간다. 소설 코너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책들을 둘러 보던 재커리는 W로 시작되는 코너에 잘못 섞여 있는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한다. 진한 버건디 색 표지에 ‘달콤한 슬픔(Sweet Sorrows)’이라는 제목 외에 아무 것도 없는 옛날 책, 작가 이름도 없는 먼지 수북한 그 책에 이상하게 끌린 그는 다른 소설 한 권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는데, 희한하게도 도서관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사서 여럿이 몇 번을 검색해도 ‘달콤한 슬픔’에 붙어 있는 바코드에는 어떠한 정보도 담겨 있지 않고, 몇 년도에 누가 쓴 책이고 이 대학 도서관에는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종이에 학번을 기록하고 그 옆에 책 제목을 펜으로 기입하고 나서 겨우 그 책을 빌린 재커리는 기숙사 방에 도착하자마자 읽기 시작한다. 단편 모음인지, 하나로 다 이어지는 이야기인지 아직 가능할 순 없지만 감옥에 갇힌 해적과 신비한 도서관을 지키는 조수가 된 소녀에 관한 짙막한 이야기 두 편이 지나가고, “소년의 엄마는 점쟁이다.”로 시작되는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재커리는 이 이야기를 단숨에 읽고, 네 번째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 방과후 수정 구슬과 타로 카드, 향, 말린 세이지, 동물의 머리를 가진 각종 신의 조각상으로 꽂 찬 엄마의 가게 위에 자리한 집으로 올라 가는 길에 좁은 골목길 벽에서, 처음 보는 그림을 발견한 어느 소년의 이야기는 바로 재커리 자신이 어린시절에 겪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소설은 재커리가 발견한 ‘달콤한 슬픔’이라는 책 속의 소설과 재커리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며 나오는 구성으로, 작가는 해적과 화가, 연인,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별이 없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들에 관한 환상적인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자신의 어린시절이 비슷한 수준을 넘어 마치 당시 상황을 모두 지켜본 것처럼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것도 작가를 비롯해 아무 정보도 없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강한 호기심을 느낀 재커리는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살살이 분석한다. 그리고 모두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달콤한 슬픔’ 속의 내용 속에 하나로 이어진 단서가 숨어 있음을 깨닫는다. 지하 감옥에 갇힌 해적이 매일 밤 자신에게 물과 빵을 가져다 주는 소녀와 애뜻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처음에는 해적을 조금 무서워하는 듯하다가 나중에는 게으른 간수가 굶아떨어진 사이 물 대신 포도주를 건네고, 치마 주머니에 빵 말고도 과일을 숨겨와서 주기도 하던 소녀가 해적이 교수대로 끌려가기 전날 밤, 창살 너머에서 팔을 뻗는 그에게 바짝 얼굴을 대고 이야기를 들려 달라며 속삭이는 장면, 그리고 특별한 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해 하룻밤을 꼬박 홀로 기다려야 했던 소녀가 꿀벌 모양의 납작한 쇠붙이를 들고 자신을 데리러 온 도서관 지킴이를 따라 가는 이야기에서는 알송달송한 그 쇠붙이를 받아 든 소녀가 새로운 지킴이가 되기 위한, 엄숙하고 무서운 ‘의식’을 치르는 과정이 그려진다.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불 속에서 벌겋게 달궈진 꿀벌 쇠붙이가 소녀의 쇄골 아래에 찍히는 순간, 목소리를 잃어버린 소녀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모여들고 보관되는 그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된, 또 한 명의 도서관 지킴이가 된다. 재커리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읽어갈수록 꿀벌이며 열쇠, 검과 같은 소재가 모두 ‘달콤한 슬픔’에도 등장하는 자신의 어린시절, 즉 집 2층 계단으로 향하는 골목 벽에 그려진 커다란 문을 발견했던 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점쟁이의 아들은 별빛이 없는 바다로 이어진 길을 찾지 못했다. 아직까지는.”으로 끝난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

책에서 찾아낸 단서를 모아 분석하던 재커리는 뉴욕에서 열리는 어느 비밀 클럽의 가장 무도회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홀린 듯 파티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지하 공간에 설치된 도서관으로 이어진 통로를 발견한 재커리는 지구 표면 저 아래, 지상에서는 존재조차 모르는 도서관을 발견한다. 모든 책들의 고향, 그리고 그 책과 이야기를 지키는 수호자와 지킴이들이 가득한 도서관은 사라진 도시들과 바다, 문틈 너머로 혹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 사랑을 주고받던 연인들을 위한 곳이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속삭이는 이야기들이 모이는 곳임을 확인한 재커리는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이 신비한 세계를 망가뜨리려는 자들이 존재하며, 이들로부터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눈과 혀를 기꺼이 내어준 이들의 가슴 아프지만 용감한 사연도 알게 된다. 강렬한 핑크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거침없이 이 은밀한 세상을 지키는 수호자 미라벨, 맨발로 사방을 뛰어다니는 잘생긴 청년 도리안과 친구가 된 재커리는 이리저리 꼬이고 엉킨 터널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계단, 사람들로 북적이는 연회장, 공기 중에 마법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해변을 넘나들며 왜 자신의 이야기가 책 속에 담겨 있는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 나선다. 환상적인 배경, 매력적이고 개성 넘치는 인물들,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들이 가득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에린 모르겐슈테른(Erin Morgenstern)은 스미스 칼리지에서 연극을 공부했다. 영화로도 제작 중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 『The Night Circus』로 데뷔했다.

제목 : A GAMBLER'S JURY

가제 : 법정 위의 도박사

저자 : Victor Methos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8년 2월 27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에드가 상 베스트 소설 상 후보로 선정된 소설**

*** 변호사, 검사로 법조계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작가의 실제 경험이 녹아 있는 현실적인 스토리와 생생한 인물들이 돋보이는 소설**

법정에 서서 누구도 못 말리는 투견이 되어 이길 때까지 끈질기게 싸우는 변호사 다니엘 롤린스에게 아주 곤란한 의뢰인이 찾아온다.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는 열일곱 살 흑인 소년, 테디 손은 코카인을 밀매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고, 거래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도 네 명이나 있었다. 테디가 생후 3개월 때 입양했다는 테디의 부모는 다니엘의 사무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돈이 원지, 부자가 되는게 원지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돈을 벌려고 위험천만한 마약 거래에 손을 댄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였다. 평소 늘 혼자 지내고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테디에게 같이 놀자고 제안한 옆집의 동갑내기 친구 케빈이 처음부터 테디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수작을 벌인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건이 넘어간 검찰 쪽에 전화를 걸어본 다니엘은 승산 없는 게임임을 바로 알아챈다. 사건 당일 테디가 마약을 건넨 사람은 밀거래 수사를 벌여온 단속 기관의 잠입 요원이었고, 그가 테디에게서 전달받은 코카인은 무려 8킬로그램, 20만 달러 어치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다. 한 마디로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정말로 죄를 지은 의뢰인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영리하게 빼내고, 무고한 의뢰인은 더 악착같이 무죄를 받아 내기로 유명한 다니엘은 순진무구한 다니엘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에 휩싸인다. 결말이 거의 정해진 사건인 만큼 변호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 어느 때보다 구해주고 싶은 상반된 마음이 한꺼번에 솟구친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테디에게서 잊고 싶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고아였던 다니엘 역시 테디처럼 위탁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고, 자신을 반기지 않는 식구들과 살 때 그 집에서 일어난 모든 안 좋은 일은 모두 다니엘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확정됐던 억울하고 분한 기억이 떠올랐다. 이미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버린 이상, 다니엘은 테디를 위해 싸워 보기로 결심한다. 어느 때와 다른 마음으로 시작된 다니엘의 변호는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테디가 늘 오매불망 같이 놀고 싶어서 안달하는 옆집 친구 케빈은 공부도 잘하고 고등학교 야구팀에서 활발히 활약하는 모범생이었다. 어릴 때는 테디와 가끔 함께 놀기도 했지만 이제는 케빈이 친구들과 뭉쳐 다니는 모습을 테디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사건이 벌어진 그날 케빈은 테디 집에 찾아와 친구 둘과 함께 파티에 갈 생각인데 같이 가자

고 제안했다. 테디의 부모님은 보호자 없이 외출을 보낸 적이 없어서 처음에 거절했다가, 너무 가고 싶어서 때를 쓰는 테디가 안쓰러워 보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테디가 경찰차를 타고 집에 돌아온 것이다. 테디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케빈과 함께 있던 다른 아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파티장에서 생전 처음 과일 펀치를 맛보고 신이 난 테디가 너무 즐거워 보이길래 두 번째 파티 장소에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테디가 그 전에 리처드슨이라는 처음 듣는 사람의 집에 잠깐 들려야 한다고 해서 다 같이 한 차에 타고 이동했다. 리처드슨 씨 집 앞에 차가 서자, 테디가 트렁크에 실어달라고 했던 커다란 가방을 꺼냈고 어떤 집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남자가 그 가방을 받고는 작은 쇼핑백을 테디에게 줬다. 쇼핑백 안에는 현찰이 가득 담겨 있었고, 밀매범을 잡기 위해 기다리던 경찰에 테디는 그대로 붙잡혔다.

다니엘은 케빈을 비롯해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이 모든 사태가 테디에게서 시작됐다고 지목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평소 테디와 즐겨 만나던 것도 아닌데 굳이 그 날 파티에 데려간 것부터가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자신들이 적발되는 것보다 장애가 있는 테디가 적발되면 좀 쉽게 풀려날 것 같아서 꾸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재판이 시작되고, 다니엘은 배심원단이 이 점을 이해하도록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주 법률상 마약이 현장에서 적발되면, 실제로 그 마약이 누구의 것인지 따지지 않고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마약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는 비합리적인 현실을 지적하기도 하고, 테디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왠지 마약에 손 댈 것 같다’는 부당한 의혹을 깔고 이 사건에 접근하려는 검사 측과 일반적인 차별도 지적했다. 그러나 세 목격자의 진술은 너무나 확고했고, 무엇보다 거래가 이루어진 코카인의 양이 너무 많았다. 어디서 그토록 엄청난 양의 마약이 나왔는지 추적하던 다니엘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다.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진 계획에 놀아난 건 테디가 아니라 다니엘 자신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테디의 양부모가 처음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왔던 날, 양아버지가 입고 있던 회사 유니폼에는 대형 제약회사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다니엘은 그 회사에서 오래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주요 성분으로 향정신성 물질 특히 코카인 성분이 들어간다는 놀라운 정보를 입수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대량 구입한 코카인을 재고 관리 담당자인 테디의 양아버지가 빼돌려, 그 동안 몇 차례나 암거래를 해왔다는 것을 알아낸 다니엘은 격분한다. 갓난아기였던 테디를 입양할 때만 해도 장애가 있는 줄 몰랐고, 크면서 알게 됐지만 차마 고아원에 되돌려 보낼 수 없어 키웠으나 막대한 치료비며 상담비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부의 호소는 과연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밝혀진 후에도 다니엘은 테디를 위해 싸울 수 있을까? 도덕과 정의,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빅터 메소스(Victor Methos)는 1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부기관에 맞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도왔다. 『Neon Lawyer』 시리즈, 『Jon Stanton Mysteries』 등 50편이 넘는 소설을 발표했다.

NON-FICTION

제목 : MIND OVER CLUTTER

가제 : 마음먹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잡동사니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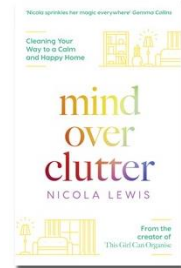
저자 : Nicola Lewis

출판사: Thorsons

발행일: 2019년 5월 14일

분량 : 240쪽

장르 : 실용



* “저자는 하루하루가 혼란 그 자체였던 우리 집을 마법을 부린 것처럼 평온하고 깔끔한 곳으로 바꿔놓았다.” – 방송인 젤마 콜린스(Gemma Collins)

* “개인적으로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저자는 이 일을 정말 환상적으로 해낼 줄 아는 사람이다. 덕분에 내 일상이 환해졌다.” – 방송인 케이티 파이프(Katie Piper)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이제 쉴 수 있다’는 안도감보다 ‘오늘은 또 얼마나 어질러져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침에 여기저기 던져놓은 빨랫감이며 쌓인 설거지는 물론이고, 벌써 며칠 전부터 치워야지 생각만 하고 내버려둔 물건들과 마주하면 피곤한 몸은 더 피곤해진다. 하루 날 잡아서 썩 치운다고 해도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거나 물건을 둘 공간이 없는 경우처럼 급한 문제만 대강 해결할 뿐,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수년째 쌓인 잡동사니들은 꺼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저자는 사람보다 짐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 공간에서 생활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 그리고 청소는 생각만 해도 아득한 사람들에게 좀 더 신나고 재미있게, 그리고 한 번 치우면 오래 지속되는 습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2017년부터 ‘정돈할 줄 아는 여자’라는 이름의 블로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름의 정리정돈 팁을 공유한 후 2년여 만에 TV와 신문, 잡지에 소개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저자의 비결은 집을 말끔하게 치움으로써 복잡한 마음도 정리하고, 기왕이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청소하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방법들로 가득하다.

치워야 할 잡동사니와 두어도 되는 물건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저자는 잡동사니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차지한 물건은 모두 잡동사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주 간단한 집안일 하나를 하려고 해도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거나,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물건들 때문에 갑갑한 마음이 든다면, 이미 집안에 잡동사니가 걱정 수준 이상으로 쌓였다는 징후로 봐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주변 환경이 기분과 정신건강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는 곳에서 생활하면 일종의 시각적 ‘소음’처럼 머릿속에 경고음이 뱅뱅 울리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끔 구석에 밀어 넣거나 문이 달린 선

반 안에 전부 집어넣어 두면 그런 시각적 소음은 피할 수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을 적시에 찾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는다. 그렇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는 바쁜 현대인에게 지금 당장 써야 할 물건을 못 찾고 온 집안을 뒤져야 하는 상황은 또 하나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저자는 그 동안 직접 집을 찾아가서 정리정돈을 도와준 고객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면서 큰 호응을 얻은 팁들을 정리하여, 집의 공간별로, 그리고 단계별로 잡동사니를 가려내고 모두 없애는 방법을 소개한다. 더불어 청소 효과가 뛰어나면서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 청소 용품을 알려주고, 재활용품을 더 값진 물건으로 변신시키는 ‘업사이클링’ 방법도 함께 설명한다. 저자의 소셜미디어를 구독하는 주된 독자층이 24-35세 여성들인 점에 주목하여 육아나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바쁜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춰 최대한 신속하고 쉽게 집안을 말끔히 치울 수 있는 요령을 제시한다. 너저분한 생활 환경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엄두가 안 나서 실천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의욕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목차>

- 1장. 나의 여정
- 2장. 정돈된 집, 정돈되는 마음
- 3장. 잡동사니 없애기: 방 별 전략
- 4장. 친환경 청소 방법
- 5장. 업사이클링과 기부
- 6장. 잡동사니 해결 계획: 잡동사니 없는 연휴 만들기
- 마지막 한 마디

<저자 소개>

니콜라 루이스(Nicola Lewis)는 블로그 ‘This Girl Can Organise’를 통해 집과 마음을 보다 신나고 지속적으로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팁과 요령을 공유해 왔다. Radio 4, 굿모닝 브리튼 등에 출연한 경력이 있으며 8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제목 : SHAPESHIFTERS

가제 : 변신의 역사

저자 : John B. Kachuba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9년 6월 15일

분량 : 208쪽

장르 : 역사



*** 모습을 바꾸는 존재들에 관한 미신과 마법, 의미를 고찰한 흥미로운 문화사**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해 울부짖는 베어울프, 멀쩡한, 심지어 매우 매력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피가 고프면 모습이 변하는 뱀파이어, 왕자에서 험악한 외모에 덩치 큰 괴물이 된 ‘미녀와 야수’ 속의 야수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습이 바뀌는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는 먼 옛날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왔다. 왜 이런 존재들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꾸준히 우리의 관심을 얻을까?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런 존재가 상상 속에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세계적인 리더들 가운데 모습이 바뀌는 괴이한 존재가 숨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수백 만 명에 이른다. 저자는 인간이 가진 동물적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들, 인간이 억누르고 사는 어두운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는 이 독특한 존재들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등장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책에서 보여준다. 시선을 사로 잡는 사진과 일러스트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서 역사와 문학, 영화, TV, 컴퓨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진 변신하는 존재들이 인간의 문화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동굴 생활을 했던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묘사한 그림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그 때부터 변신에 관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채집과 사냥이 생존의 필수 과제였던 그 시절은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인간도 간혹 더 교활하고, 더 민첩하고 힘이 센 동물에게 붙들려 먹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자연히 그런 동물들의 우세한 능력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여우의 교활함, 치타의 무서운 속도, 사자의 힘을 내가 갖게 된다면? 이런 욕망은 인간이 바로 그런 동물의 모습을 동시에 갖춘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상상력으로 이어진다. 이와 동시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고도로 발달한 도덕성과 사회적 관습을 중시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왔다. 정교하게 구축된 이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은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치는 가벼운 행위부터 인종, 종교, 민족적인 이유로 학살을 자행하는 행위까지 모두 벌을 받아야 할 잘못된 행위로 규정한다. 이는 인간에게 남아 있는 원시적인 본능, 동물적 욕구를 스스로 억눌러야 한다는 강력한 바람과 의무가 내포된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가끔 유혹을 느끼듯 만약 이 모든 거추장스러운 규칙을 다 벗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상상을 낳는다. 지킬 박사가 하이드라는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도 바로 이런 상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변신하는 존재의 범위는 동물 혹은 동물 같은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우스 신화에도 나오듯이 성별과 연령을 넘나드는 변신까지 포함된다. 저자는 이러한 변신의 경우 그저 모든 속박을 벗어 던지고픈 욕구를 넘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는 인간의 정체성 추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한 도시의 시민이고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제적 지위나 교육 수준, 직업, 종교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하고 디지털 시대에는 가상 공간에서 더욱 다양한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만큼, 그로 인한 혼란과 고민이 변신하는 존재에 끌리고, 공감하고, 그러한 존재를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시대마다, 문화마다 각양각색으로 등장한 변신하는 존재들의 특징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내밀한 욕구를 다채롭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새삼 깨닫게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목차>

머리말: 변신의 세계

1. 신과 여신: 고대의 변신
2. 사람이 신으로: 치명적인 변신
3. 변신의 힘
4. 요정, 그리고 설화 속 변신 이야기: 유럽
5. 세계 곳곳의 요정, 그리고 설화 속 변신 이야기
6. 베어울프
7. 뱀파이어
8. 유동적인 변신: 성과 성별, 정체성
9. 대중문화 속 변신: 문학과 미디어
10. 마지막 변신

<저자 소개>

존 B. 카추바(John B. Kachuba)는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문예 창작을 가르치고 있다. 수상 경력이 있는 저술가이기도 하며, 저서로는 『Ghosthunters』(2007), 『Dark Entry』(2018) 등이 있다.

제목: KICKBACK

가제: 뇌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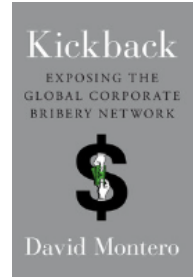
저자: David Montero

출판사: Viking Press Inc

발행일: 2018년 9월 15일

분량: 320 페이지

장르: 경제



- * “기업 뇌물수수의 영향을 통찰력 있고 명료한 글로 폭로한 책. 저자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는 이런 문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안겨줄 것” - 「퍼블리셔스 위클리」
- * “독특하고, 간결하게 깨달음을 준 책이다. 뇌물이 어떻게 작용하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보여준다.” - 폴리티카 상 수상자, 저널리스트 로웰 버그먼(Lowell Bergman)

세계은행에 따르면, 매년 덩치 큰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공무원들에게 주는 뇌물 액수가 수천 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 엄청난 금액만 봐도 예상되겠지만, 몇몇 부도덕한 기업에 한정되는 일도 아니다. 소위 ‘포춘 500대 기업’이라 일컬어지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많은 업체들이 그 명단에 포함된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저자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업 뇌물수수 행위가 얼마나 은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폭로하고, 세계 최대 기업들 다수가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부정행위로 어떻게, 얼마나 큰 이익을 얻고 있는지 보여준다. 더불어 문 뒤에서 벌어지는 경제적인 거래가 돈을 챙겨 넣는 자들의 주머니와 통장을 두둑하게 채우고 돈을 준 기업의 사업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시스템 전체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는 과정을 낱알이 드러낸다.

전 세계 1만 1천 곳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연구에서, 기업 관리자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와 비슷한 곳들 중 32 퍼센트는 계약을 따 내기 위해 뇌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저자는 법원 판결 기록과 외부로 유출된 기밀 문건, 관련자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사담 후세인의 정권 확보나 그리스의 경제적 붕괴 등 대다수가 ‘갑작스러운’ 사태로 여긴 세계 곳곳의 사건들이 이 같은 뇌물 수수와 얼마나 깊은 관련성이 있는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디로 돌아가는지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 박봉에 시달리는 의사들이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제약업체들이 건네는 돈을 받아 챙기는 일이 횡행하고 이는 항생제 과다 처방으로 이어져 항생제 내성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대한 시초가 되었다. 또한 UN이 1995년에 시작한 ‘오일 포 푸드(Oil-for-Food)’ 사업은 이라크가 세계 시장에 석유를 판매하고 그 돈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나, 판매되는 배럴 단위로 뇌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담 후세인이 수억 달러의 뒷돈을 챙겨 은밀하게 군대를 키우고 정보부를 구축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 영향은 방글라데시의 어느 젊은 사회운동가가 살해되는

개인적인 결과부터 그리스 전체 경제를 무너뜨리는 국가적인 수준까지 다양하고,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깊숙이 파헤치며, 세계 권력자들, 산업계 리더들과 친밀한 교류를 맺는 중간 대행인들이 정부의 레이더 망을 피해 불법적인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대하고 치밀한 네트워크를 수면 밖으로 끄집어낸다. 영국 동인도 회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업 뇌물의 역사와 함께, 각국의 경찰과 정보부 요원, 뇌물수수 혐의로 범죄자 신세가 된 사람들, 기업 간부, 부패 전문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제공한 정보로 어쩌면 단순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불법 거래가 낳은 충격적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뇌물을 근절하려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조치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본다.

세계 경제가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위태롭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대 기업과 부도덕한 정부기관의 불법적인 관계가 전 세계 경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날카롭게 지적한 시의 적절한 책이다.

<목차>

1부. 접촉

1. 머리말
2. “억겨운 부패 행위”
3. 돈 상자

2부. 뇌물수수 시스템

4. 행복한 바보들
5. 검은 장막
6. 늪 속의 선상가옥

3부. 영향

7. 미자(Miza)
8. 불 난데 기름 붓는 격
9. 광음

4부. 바로잡기 (10-11장)

<저자 소개>

데이빗 몬테로(David Montero)는 탐사 취재 기자로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특파원과 PBS 시리즈 <FRONTLINE>의 프로듀서를 맡았다. 에미 상 후보로 두 차례 선정되었으며 남아시아 저널리스트 협회 상 후보에도 올랐다. 뉴욕타임스, 더 네이션 등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SOCIAL MEDIA WORKBOOK FOR TEENS

가제 : 심대를 위한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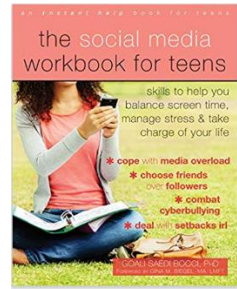
저자 : Goali Saedi Bocci

출판사: Instant Help

발행일: 2019년 3월 1일

분량 : 152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 / 심리학



★ “대세에 끼지 못하는 것에 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소셜미디어를 사용할수록 서글픔을 느끼는 전형적인 십대(그리고 성인)들에게 필요한 책” – 『A Still Quiet Place for Teens』의 저자 의학박사 에이미 살츠만

★ “저자는 청소년과 그 부모들에게 ‘화면 좀 그만 쳐다보고 고개를 들어라, 인생을 살아라’라고 외치며 간단하면서도 센스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 『The Relaxation and Stress Reduction Workbook for Teens』의 공저자, 캘리포니아 대학교 부교수 마이클 A. 톰킨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온통 정신이 쏠려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한 공간에 둘러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얼굴을 보거나 말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보다 작은 스크린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더 긴 상황을 우려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같은 광경을 당연한 변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 그러나 살아온 날보다 아직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현실보다 가상 공간에 더 오래 머무르는 이러한 변화가 훨씬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소통의 속도, 범위 등 다른 매체가 따라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 하지만 글도, 정체성도 쉽게 만들고 쉽게 지우거나 바꿀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악용한 괴롭힘 문제와, 청소년들이 자력으로 이겨내기 힘든 중독성, 심리적인 불안감을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미디어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저자는 현재를 살면서도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소셜미디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최신 기술의 장점을 누리되 한 번 지나가면 되찾을 수 없는 삶의 소중한 순간,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즐거움보다 불안과 고통을 더 많이 얻는 지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 법,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나 타인의 의견, 평가보다는 우선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잊기 쉬운 사실을 강조한 다양한 가르침이 담긴 책이다.

★ 소셜미디어가 현실의 자신을 잡아먹고,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책을 통해 강조하였다.

저자는 풍부한 근거로 뒷받침되는 인지행동치료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기기 화면에 너무 오래 매달릴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한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만난 ‘팔로우’보다 현실에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놀 수 있는 친구가 왜 더 소중한지 알려주고, 사이버공간에서 맞닥뜨린 또래들의 집적거림이 어디까지 짓궂은 장난이고 어디부터가 악의적인 괴롭힘인지 구분하는 방법도 설명한다. 이제는 소셜미

디어가 완전히 끊고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소통 방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중심을 차지하거나 귀중하고 한정된 시간을 빼앗도록 두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자신의 글이나 사진에 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친구가 새로운 글이나 사진, 정보를 업로드 했는지, 그것에 대해 또 누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초조한 마음으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고 하나도 빼먹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감마저 느끼지만, 저자는 그런 최신 소식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큰데다 자신의 현실을 풍요롭게 하는데 거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청소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한다. 소셜미디어의 순기능을 마음껏 즐기기도 부질없고 쓸모 없는 위화감과 소외감에 괴로워한다면, 이제 그 악순환을 직접 끊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신나게 지내고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정말 불안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카롭게 짚어낸 유익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이 책을 읽는 부모님과 전문가들에게 전하는 말

이 책을 읽는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말

1부. 기계와 절교하기

실천 방법 1. 나도 소셜미디어 쓰는 방식에 정말 문제가 있을까?

실천 방법 2.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피드 속에 갇혀 있는지?

실천 방법 3. 범인은 소셜미디어

실천 방법 4. 일일 사용 기록

실천 방법 5. 단계별 변화 (이하 생략, 총 10장까지 구성)

2부. 현실적인 생존 기술

실천 방법 11. 소셜미디어 스트레스 관리

실천 방법 12. 기기로 인한 고통에 대처하려면

실천 방법 13.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괴롭힘

실천 방법 14. 목적의 권태로움 (이하 생략, 총 23장까지 구성)

3부. 기술 없이 살기 (24-31장)

결론

<저자 소개>

고알리 사에디 보치(Goali Saedi Bocci)는 공인 임상 심리학자이자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인턴과 펠로우 과정을 마쳤다.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칼럼을 기고해 왔으며 <밀레니얼 미디어(Millennial Media)> 블로그에도 10년 가까이 글을 제공해 왔다. 타임 지, 뉴스위크, ABC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 전문가로 출연했다.

제목 : CONSCIOUS

가제 : 인식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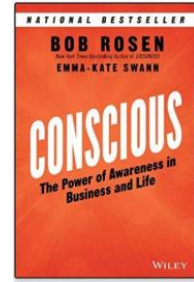
저자 : Bob Rosen, Emma-Kate Swann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8년 7월 18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경영



- * “무엇이든 빨라진 시대에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적응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리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Target 회장, CEO 브라이언 코넬(Brian Cornell)
- * “리더십과 성과의 근간에는 인간성의 발달이 자리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우리에게 내재된 지혜를 활용하고 머리와 가슴이 하나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책” – 미국 평화연구소, 캐슬린 T. 로스(Kathleen T. Ross)

인간은 적응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능력만으로 따라가기 힘들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속도만 빠른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한 변화가 연이어 다가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적응 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 발휘될 뿐, 새롭게 맞닥뜨린 문제를 꼼꼼하게 대비하거나 제대로 대처하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한 채로 또 다음 문제에 봉착한다. 그 결과,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중요한 기회를 의도치 않게 놓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 눈 앞에 놓인 수많은 판단과 상충되는 가치들, 날이 갈수록 어렵게만 느껴지는 대인관계 또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불확실한 건 일단 두려움과 불신이 짙게 깔고 바라본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포기하게 한다. 조직 심리학자이자 크고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변화 관리 방안을 제시해온 두 저자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조직에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필사적으로 세운 조직의 성장 계획은 대부분 실현되지 못하고, 구성원들 대다수가 조직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보람보다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문화가 팽배하고, 단기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만 추구하다가 훨씬 큰 장기적인 성공을 놓친다. 그럴수록 일하는 사람들 간에 긴장은 높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 가능성은 더욱 멀어진다. 두 저자는 개인의 측면에서나 조직 전체의 측면에서 이런 답답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적인 뿌리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인식 능력의 부족’이다. 개인과 조직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혹은 어디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인식하는 능력이 결여되면서 빚어진 이 결과는 우리가 지각 능력을 키우고, 보다 의식적으로 일하고 살아갈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 *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먼저 바꿔야 한다.

두 저자는 제대로 된 인식 능력을 갖추면 눈 돌아갈 정도로 빠른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고, 목표로 정한 성과 그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식하는 능력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혜라고 설명한다. 두 저자가 전 세계 다양한 기업의 리더십과 변화를 지원하면서 발견한 인식 능력의 개선 방안은 시선을 양 갈래로 똑같이 두는 것, 즉 더 멀리, 자신이 처한 환경을 예의주시하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아주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는 곧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나와 조직의 성장과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한 내적 자아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고, 필요한 행동은 과감하게 추진하되 정직하게 뚜렷한 목표를 두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저자는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명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갖고 있는 놀라운 적응 능력을 현 시대에 가장 알맞은 형태와 수준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목차>

1부. 의식하기, 새로운 지혜

1. 거칠고 험한 무선 세상
2. 의식하기, 새로운 지혜
3. 의식하는 방법
4. 투자와 수익

2부. 더 깊은 곳으로, 내적 자아를 찾아서

5. 거울 속에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6. 내면의 지혜를 찾아라
7. 나무에 숨은 악어가 보이십니까?
8. 불편함, 새로운 면역기능
9. 의식적인 삶의 뿌리
10. 여행은 가볍게

3부. 크게 생각하라, 그래야 세상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11-16장)

4부. 가속기와 걸림돌 제대로 찾기 (17-20장)

5부.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21-27장)

<저자 소개>

밥 로센(Bob Rosen)은 CEO 자문가이자 조직 심리전문가, 베스트셀러 저술가다. 리더십 향상을 돕는 업체 ‘Healthy Companies’의 창립자이자 CEO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Grounded: How Leaders Stay Rooted in an Uncertain World*가 있다.

엠마 케이트 스완(Emma-Kate Swann)은 ‘Healthy Companies’의 부대표로 다양한 기업의 리더와 경영진의 성과 최적화, 변화 관리, 생산성 향상을 전문적으로 이끌어 왔다.

제목 : HOW TO HEAL WITH COLOR

가제 : 상처에 색깔을 바르다

저자 : Ted Andrews

출판사: Llewellyn Publications

발행일: 2005년 11월 8일

분량 : 192쪽

장르 : 자기계발



- ★ 아마존 베스트셀러 <Animal-Speak>의 저자 Ted Andrews의 색 치료에 관한 책
- ★ 터키,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중국, 체코, 러시아 등 19개국 판권 계약
- ★ 미국에서만 125,000부 이상 판매

관심이 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이것저것 던지는 질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가 있다.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다.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즐겨 입는 옷 색깔이나 소지품의 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누군가 물었을 때 주저없이 떠오르는 색으로 새삼 깨닫기도 하는 색 기호는 굉장히 뚜렷한 경우가 많다. 좋아하는 색은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색은 정말 싫어해서 그 색깔로 된 옷이나 물건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색을 꼭 물어보게 되는 이유 중에는 그 취향 속에 그 사람의 성격적인 성향까지 조금은 담겨 있다고 대다수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인식이 자연스레 자리를 잡았을까? 색에 있어서만큼은 ‘아무거나’란 없고 확실한 취향이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빛에서 비롯된 색깔이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상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한다. 우리가 먼 옛날부터 색깔로 우리의 건강이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개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활용해 온 것은 색깔이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색을 활용하여 우리 모두가 가진 내재된 자연 치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저자는 색깔을 이용한 이 같은 ‘컬러테라피’의 기본적인 원리와 함께 색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색과 빛, 촛불 등을 이용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깔은 빛에서 나온다. 즉 태양의 전자기적 에너지인 빛이 물체에 부딪히면 제각기 다른 파장에 따라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의 파장이 다르다는 것은 색도 그렇다는 의미이고, 인체가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색마다 파장이 다르고, 이는 빛과 전기, 열, 소리, 자기, 전자기 에너지 등 수많은 에너지장에 둘러싸여 영향을 받는 인체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분자로 구성되고 모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는데, 이 원자를 이룬 전자와 양자는 끊임없이 진동한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은 이처럼 진동하는 원자로 이루어지고 진동 패턴이 균형을 잃으면 몸이 아프거나, 어딘가 불편하고 힘든 느낌을 일으킨

다.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정상적인 진동 패턴이 깨지면서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러한 결과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균형이 깨진 진동 패턴을 회복하면 불편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저자는 컬러테라피로 인체의 에너지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에너지 자극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상태를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각 상태에 꼭 알맞은 에너지를 문제가 발생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균형이 회복되어야 몸속에 쌓인 독소와 부정적인 영향을 자연스럽게 몰아내는 치유 능력이 활발히 기능할 수 있다. 특별한 소리, 향기, 생각 등이 바로 그 미세한 에너지 자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색깔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 책에서는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어떤 색이 필요한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치유에 도움이 되는 색을 투사하고 흡수함으로써 치유력을 회복하는 과정과 함께 재미 있고 쉬운 연습을 통해 색에 대한 민감도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목차>

1. 빛과 색깔의 세계
2. 색깔에 담긴 영향
3. 색 민감도 키우기
4. 컬러테라피와 차크라
5. 무슨 색이 필요할까
6. 컬러테라피와 공기, 그리고 물
7. 색의 투영
8. 촛불로 얻는 치유
9. 색깔 나무
10. 네 세계의 색깔
11. 색깔 치유 만다라
12. 전인적 건강 관리

<저자 소개>

테드 앤드류스(Ted Andrews)는 다양한 세미나와 심포지움, 워크숍을 통해 꿈 해석, 타로 카드 점, 사후 세계 등 형이상학적, 영적 능력을 공유해 왔다. 공인 침술사, 최면요법사이기도 하며 피아니스트로도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Animal Speak』를 비롯해 『How to See & Read the Aura, Crystal Balls & Crystal Bowls』, 『Sacred Sounds』 등이 있다. 2009년에 사망했다.